

휴수자들의 반란

레스터시티 창단 132년만에 EPL 우승

공장 노동자 바다·빈민가 출신 마레즈·맨유 퇴출 칸테 현대 축구 좇는 대신 탄탄한 수비로 역습...EPL 평정

어떤 이는 이를 '기적'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동화'라고 말한다.

세계 최고의 축구 각축장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만년 하위팀 레스터시티가 창단 132년 만에 처음 우승 컵을 들어 올렸다.

레스터는 이번 시즌 개막 당시 우승 확률이 극히 낮은 '언더독'이었다. 현지 도박업체들은 우

1부리그 우승은 없었다. EPL이 들어선 이후에도 2부리그를 오갔다. 첫 시즌인 1994-1995 레스터는 최하위권 성적으로 강등되며 EPL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2014-2015시즌 빅 무대를 다시 밟는 데에는 무려 10년이 걸렸다.

2012년 레스터 유니폼을 입은 제이미 바다는 오전에는 주급 30파운드 받고 치료용 부목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오후에 축구를 하는 선수였다. 리아드 마레즈는 빈민가 출신으로 그나마 프랑스 2부리그에서 뛰었고, 미드필더 드링크 워터는 맨유에서 4년 동안 2군에서만 뛰다가 퇴출당하다시피 했다. 미드필더 은골로 칸테는 170cm도 안 되는 키에 프로 데뷔 경력도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몸값은 '싸구려'였다.

2012년 바디의 이적료는 93만 파운드(약 15억4000만원)였다. 마레즈는 37만 5000파운드(약 6억2000만원)에 이적했다. 왼쪽 수비수 크리스티안 푸흐스와 미드필더 마크 알브라이트는 이적료가 없었다. 주전 멤버 11명의 이적료는 총 2411만4000파운드(약 401억원)에 불과

승 확률을 불과 5000분의 1(0.02%)로 전망했다. 그러나 레스터는 이를 보란 듯이 뒤집었다. 기적을 만들어냈다.

1884년 창단한 레스터는 1992년 EPL이 설립되기 전부터 1, 2부리그를 드나들었다. 1928-1929시즌 준우승을 했지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가 2일(현지시간) 첼시와 토트넘의 무승부로 리그 우승을 차지하자 영국 레스터에서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다. 이번 시즌 맨시티로 이적한 라힘 스틸링(4400만 파운드·731억5000만원)의 절반,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2200만 파운드)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선수단의 전체 연봉은 800억 원도 채 되지 않아 4000억 원 수준인 첼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어중이 떠중이'들의 집합소였던 레스터는 축구라는 꿈을 향해 하나로 뭉치며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거짓말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된 것이다. 이들 미생은 지난해 7월 클라우드 라니에리 감독을 만나면서 최적의 조합으로 탄생했고, '원석'으로 거듭났다.

레스터는 볼 점유율을 높이는 현대 축구의 흐름을 좇지 않았다. 20개 팀 중 볼 점유율이 18위(46%)에 그쳤다. 패스 성공률 역시 최하위권이다. 대신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역습으로 프리미어리그를 평정했다. 무실점으로 막은 것은 15경기나 됐다. 바디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은 역습 축구에 안성맞춤이었다. 마레즈의 재치 넘치는 현란한 드리블에 이은 정확한 슈팅은 금상첨화였다. 주전 대부분이 부상에 시달리지 않았고, 잉글랜드협회(FA)컵 등에서 일찍 탈락하며 EPL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우승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바디

KIA 마운드 '플랜 B' 조기 가동

선발 임기준-한기주·필승조 흥건희 투입

윤석민·곽정철·심동섭 등 빈자리 메우기



부상 위기 타파를 위해 KIA 마운드에 '플랜 B'가 가동된다.

5월을 맞은 KIA 타이거즈에게 주어질 최대 속제는 마운드 재정비다. 곽정철-임준혁-심동섭-윤석민-김운동-한승혁이 연쇄 부상을 당하면서 마운드 가용 자원에 변화가 생겼다.

임준혁-윤석민이 빠진 선발진의 재구성부터 진행됐다. 한기주가 임시 선발에서 고정 선발로 일단 자리를 잡았다. 앞선 로테이션보다 한 박자 빨리 베타를 기용하면서 롯데-넥센 타선을 상대하게 한 김기태 감독은 임기준으로 일단 부족했던 선발 자리를 채웠다.

김기태 감독은 3일 롯데와의 경기에 앞서 "임기준이 내일 선발로 들어가고, 지크-한기주 순서로 이번 주 선발로테이션을 운영한다"며 "결과에 따라서는 임기준의 자리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 공을 때리는 게 더 좋아진 것 같다. 스피드로 2~3km 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더 발전했다는 평

가다.

김 감독은 "지난해 초반에는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쉽게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스프링캠프에서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올 시즌에는 많이 성숙해졌다"고 평가했다.

필승조 요원들이 동시에 빠진 자리에서는 일단 흥건희가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 선발 후보로도 언급됐던 흥건희는 예상치 못했던 김운동의 한승혁의 부상 상황에서 뒷받침을 위한 자원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나마 심동섭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게 불행 중 다행이다.

김 감독은 "흥건희는 뒤쪽에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부상선수 중에서는 심동섭의 복귀가 가장 빠를 것 같다. 피칭도 했고, 경기를 한 번 소화하는 게 낫다는 평가에 따라 (2군에서) 경기를 뛰게 할 생각이"고 언급했다.

한기주와 임기준이 불펜에서 시즌은 시작했지만 두 선수의 선발은 미리 준비됐던 '플랜 B'다. 부상 등의 변수를 감안해서 캠프에서부터 100구 이상을 소화하게 하면서 선발로서의 준비도 해두었다. 그러나 예상보다는 빠르게 '플랜 B'가 가동되게 됐다.

출발상으로 험난한 5월을 시작하게 된 KIA가 준비된 카드로 위기를 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찬 사이클링히트 시상식

KIA 김주찬의 사이클링히트 시상식이 3일 롯데와의 경기에 앞서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됐다. 구본능(오른쪽) KBO 총재와 박한우 KIA 사장(왼쪽)이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김주찬은 지난 4월15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투런포를 시작으로 1루타, 3루타, 2루타를 차례로 성공시키며 타이거즈 35년 역사 첫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이 됐다. 프로 야구 통산 19번째 기록이기도 하다. <KIA 타이거즈 제공>

"야구가 새롭게 보인다"

최희섭, 미국서 코치 연수 마치고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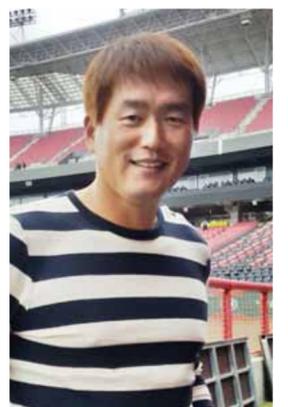
'빅쇼' 최희섭이 밝은 표정으로 챔피언스필드로 돌아왔다.

KIA와 롯데의 경기가 열린 3일 챔피언스필드에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다. 코치 연수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최희섭이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을 한 것이다. 최희섭은 지난 2월 미국으로 출국해 4월4월30일까지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코치 연수를 받았다.

최희섭은 "다들 몸이 좋아졌다고 한다. 얼굴도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나? 미국에서 잘 지내고 왔다"고 귀국 소감을 밝혔다.

KIA 김기태 감독과 동료들도 다시 만난 최희섭을 반겼다. 최희섭도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이 반갑기는 마찬가지. 브렛 필을 향해 "아이 미스 유"를 외치는 등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었다.

최희섭은 "우리 프로야구 선수층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많은 선수가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 선수들의 마음가짐이나 코치들의 태도도 달랐다. 선수들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알아서 움직이고 준비를 한다. 먼저 다 준비를 하고 경기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고 "빅 쇼필터(볼티모어) 감독에게도 많은 것을 배웠다. 20년의 것을 이틀 만에 다 배운 기분이다.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을 다



시 보고 겪어보니 기분이 새로웠다"고 언급했다.

최희섭은 제 2의 야구 인생을 위해 큰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돌아보고, 지도자로서의 앞날을 구상해왔다. 아직 은퇴가 실감나지 않는 그는 오늘 15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서재용과 합동 은퇴식을 갖고 선수 최희섭이라는 이름으로는 마지막 경기에 서게 된다. 은퇴식에 앞서 최희섭은 김기태 감독의 주문에 따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KIA와 넥센의 주말 3연전을 지켜볼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점 기계' 박병호 2타점 3루타 등 멀티히트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메이저 리그 첫 3루타를 때렸다. 득점권에서 주자 2명을 싸늘이하며 승리를 이끈 영양가 높은 타점이었다.

박병호는 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네이스트파크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벌인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박병호의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경기는 이번이 시즌 4번째다. 이 가운데 세 번째 타석에서 2타점 3루타를 때려냈다.

박병호는 3-1로 앞선 5회초 1사 1, 2루에서 시속 약 137km 직구를 받아쳐 중견수를 넘어가는 싸늘이 3루타를 치며 점수를 5-1로 벌렸다. 타구는 중견수 뒤쪽으로 움

푹 들어간 지점인 미네이스트파크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떨어졌다.

박병호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3루타다. 득점권에서 나온 3루타여서 더욱 반가웠다. 이전 경기까지는 득점권 성적이 17타수 1안타에 그쳤다. 박병호의 활약 속에 미네소타는 6-2로 승리, 4연패에서 벗어났다.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다시 한 번 무실점 투구를 했다.

오승환은 필라델피아 필리스 원정에서 6-3으로 앞선 7회초 등판했다. 1이닝을 타자 3명으로 간단하게 요리했고, 최고 구속

은 시속 151km까지 나왔다. 공 11개를 던졌고, 그중 9개가 스트라이크로 공격적인 투구를 했다. 전날 2루타 2개를 맞고 0.2이닝 1실점을 했던 오승환은 다시 '돌부처'로 돌아오면서 평균자책점을 1.84까지 낮췄다. 또 시즌 4번째 홀드를 쟁겼고, 팀은 10-3으로 승리했다.

무릎 재활 마지막 단계로 마이너리그 경기를 소화 중인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 리츠)는 안타 한 개를 치며 빅리그 복귀의 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타이거즈 팬, 어린이날 소년소녀가장 초청

KIA 타이거즈 팬들이 챔피언스필드에서 어린이날 자선행사를 연다.

KIA 서포터즈인 'KIA Tigers Fan Team'이 오는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홈경기에 광주·전남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및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 140명을 초청한다.

운영진 리더 서중선씨와 응원단 단장 신교진씨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KIA Tigers Fan Team'회원 30명도 자원 봉사자로 챔피언스필드를 찾

는다.

'KIA Tigers Fan Team'는 지난해 9월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서포터즈 팀이다. 현재 460명이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호랑이 군단'의 안방 마님으로 활약했던 최혜식씨가 물론 역할을 맡고 있다. 광주, 수도권은 물론 경기상 등 각 지역의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야구장을 찾아 KIA 응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